

일제시기 1:50,000 지형도를 베이스맵으로 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의 구축

The Construction of the Electronic Cultural Atlas of Chosun Korea based on the Topographic Maps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

김종혁(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kjhgeo@korea.ac.kr)

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시기에 발행된 1:50,000 지형도를 베이스맵으로 하여 조선시대 각종 문화정보를 지리정보로 구축하는 데에 있다. 스캔된 총 718매의 일제시기 지형도는 지리좌표 보정 작업을 거치고 조선시대 군현 행정구역을 복원한 후 디지털화하여 기본적인 GIS 자료로 구축되었다.

본 전자문화지도는 시간(Time), 공간(Place), 주제(Subject)라는 삼차원적 구조로 틀이 짜여졌다. 이용자는 이 안에서 시간, 공간, 주제의 세 요소를 자유롭게 조합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물론 현재로서는 조선시대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이 전제되어 있지만, 향후 시간 범위를 선사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앞뒤로 연장하고, 시대에 따라 공간 범위도 확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열려있다.

지금까지 행정구역 복원 외에 인구·경지·서원·사찰·인물·산수유기·도로망·진도·민요·의복·음식 등의 항목이 DB화되었고, 현재는 Gazetteer(지명) 구축과 지리지 및 민속 정보 DB 구축 작업이 수행 중이다. 특히 Gazetteer 구축에는 지명사전류, 지리지류, 1:5만 지형도 및 고지도에 기재된 모든 조선시대 지명이 포괄되어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지명 검색은 물론 본 전자문화지도의 공간적 기능이 크게 진작될 것이다.

전자문화지도를 개발하는 목적의 하나는, 특히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. 따라서 DB로 구축하려는 텍스트의 선정이나 DB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련의 과정은 극도로 전문적이다.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방면에서 일반인들도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능한 평이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한다. 이에 교육계나 인문 콘텐츠 또는 문화사업 분야에서도 본 연구 성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